

비판적 사고 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민규*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비판적 사고 평가 사례
- III. 나오는 말: 대학 교양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대학 교양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이 갖는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는 사고의 논리성과 판단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사고의 방법론이다. 비판적 사고와 관련한 최근의 평가 도구들을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는 논리/추론 능력에 기반을 두고 이를 응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창조적/대안적 능력을 평가하고 교육한다. 대학에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배양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배양된 역량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과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만이 비판적 사고는 사고의 방법론으로서의 도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사고 교육의 내용들을 계열 또는 학과별로 차별화하고, 부과하는 과제와 평가 역시 교육 대상자의 전공 관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비판적 사고, 논리/추론, 고차적 사고, 창조적 사고,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 평가(K-CESA), 비판적 사고력 평가(TOCT)

* 중앙대학교

I. 들어가는 말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교육이 21세기 교육의 핵심으로 등장한 이후, 교양교육의 형식과 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지식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보다는 지식을 분석, 평가하고 가공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사고능력의 향상을 필요로 한다. 비판적 사고란 사고의 논리성과 판단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사고의 방법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¹⁾ 따라서 비판적 사고는 특정한 내용을 갖고 있는 학문의 분과 영역이라기보다는, 개별 학문을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도구적 성격을 갖는다. 비판적 사고 교육은 특히 고차적 사고(higher order thinking)를 필요로 하는 대학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에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결국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결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 교육이 목표로 하는 것이 고등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표는 더 잘 교육된 인재를 배출하는 것으로 달성되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인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의 현재를 되돌아본다면 비판적 사고가 담당해야 할 교육적 역할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배출해야 할 인재는 어떤 역량을 보유해야 할까? 취업을 잘 하는 인재이면 충분할까?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요건에 충실하면 될 것인가? 대학의 요구에 기여하는 인재이면 되는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전문성을 확보한 인재면 그것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진정한 인재일까? 이러한 인재상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위에서 열거한 역량들 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 의미의 대학 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은 대학에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 즉 비판적 사고 교육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논자는 비판적 사고 교육 자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역량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사고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교육의 도구적 성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비판적 사고가 평가되는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고,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인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역으로 추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교육이 담당해야 할 비판적 사고 교육의 역할에 대해 검토해본다.

1) 홍경남·서민규, 「대학 비판적 사고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4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0.

II. 비판적 사고 평가 사례

지식기반의 지구촌 사회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교육기관의 객관성 확보가 요구되고 이는 교육성과 측정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OECD는 학부교육 중심의 고등교육 학습 성과를 측정해 그 결과를 고등교육 기관의 경쟁력 평가에 활용하고자 ‘OECD 대학교육 학업성취도 평가’ 모형을 개발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구촌화된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도 있다.²⁾ 이는 당연히 국내의 교육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등 교육의 경우 교육을 내실화하고 그에 맞는 성과를 객관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학 교육에서의 학업 성취도, 특히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학업성취도는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된 국내의 동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K-CESA)”와 중앙일보사가 개발한 “비판적 사고력 인증시험(TOCT)”을 살펴보고자 한다.

II.1. K-CESA: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6년부터 한국 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여 객관화 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을 추진해 왔다.³⁾ K-CESA가 평가하려는 여섯 개 항목의 핵심 영역은 1) 자원/정보/기술의 처리 및 활용, 2) 종합적 사고력, 3) 의사소통 능력, 4) 대인관계능력, 5) 글로벌 역량, 6) 자기관리역량 등인데, 이 가운데 고등교육의 수준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종합적 사고력’을 들 수 있다. K-CESA가 정의하는 종합적 사고력이란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혹은 탐구력, 창의적 사고, 메타인지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고차적 사고 혹은 고급 사고력 (higher order thinking)’이라고 일컫는 영역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⁴⁾

고등 교육의 핵심인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함으로써 대학생 개인에게는 자기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대학에게는 우수한 인

2) Barbara Ischinger,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Director for Education,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대학교육 학업성취도 평가 간담회」 발표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

3) 진미석 외, 『2009년도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체제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2010.

4) 위의 책, 191-192쪽.

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측면에서는 종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적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K-CESA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종합적 사고력 영역이 측정하려는 핵심역량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종합적 사고력이란 정보를 수용하는 일반적 사고력의 상대적 개념으로, 수용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고차적 수준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합적 사고력은 (1) 모호하고 다면적인 문제 상황을 명료화하여 문제로 인식하는 능력 (분석적 능력), (2)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들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고 원리와의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 (추론적 능력), (3) 준거에 비추어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능력 (평가적 능력), (4) 가장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대안적 능력) 등을 평가하는 영역이다.⁵⁾ 종합적 사고력 평가의 하위영역을 다음의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K-CESA 종합적 사고력의 하위 영역 및 평가 요소⁶⁾

하위 영역	평가 요소
분석적 능력 (analytical competence)	진술 또는 자료의 해석, 진술 또는 자료의 관계 파악, 해결해야 할 과제 이해, 과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 정보 파악
추론적 능력 (inferential competence)	진술 혹은 주장에 표명되지 않는 가정 인지, 주어진 진술 혹은 내용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타당한 결론 도출(귀납), 진술이나 주장이 어떤 특정한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인식(연역)
평가적 능력 (evaluational competence)	과제 해결의 목적에 타당한 최선의 대안 선정, 타당한 준거나 기준에 근거한 각 진술, 가설, 대안 등의 아이디어를 검증, 계획된 대안을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결과의 견지에서 판단
대안적 능력 (alternative competence)	과제 해결을 위한 가설, 대안 등의 아이디어 생성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K-CESA가 채택하고 있는 평가 방식이다. K-CESA는, 다른 유사 평가도구들과는 달리, 종합적 사고력이 갖는 내재적 특성을

5) 이러한 평가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K-CESA는 미국의 CLA (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TCT (Tasks in Critical Thinking), GRE Writing, LSAT (Law School Admission Test), MCAT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 그리고 국내의 삼성직무적성검사 (SSAT), 공직직성검사 (PSAT) 등을 분석해 활용했다. 위의 책, 192-193쪽 참고.

6) 위의 책, 193쪽.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다형이 아닌 논술형 평가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합적 사고의 과정(higher order thinking process)은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다면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포괄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다형의 단일한 채점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종합적 사고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한 분석적 능력과 추론적 능력은 선다형 문항으로도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평가적 능력과 대안적 능력의 경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술형과 같은 개방적 평가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K-CESA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K-CESA는 종합적 사고력의 하위 영역들을 모두 포괄해 평가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논술형 평가방식 중에서도 “제한된 논술형 문항(restricted response essay item)”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문항 세트에서 계속 달라지는 문제 사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수행과제를 종합적 사고의 하위 영역별로 차별화해 부과하는 방식이다.⁷⁾ K-CESA 종합적 사고력 평가에서는 제한된 논술형 8 문항을 제시하고 90분 동안 각각의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평가 참여자들에게 기초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분석적 사고를 수행하도록 하고, 새로운 자료를 누적적으로 제시하면서 추론적 사고, 평가적 사고, 대안적 사고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평가적 사고와 대안적 사고가 분석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분석에 기초해, 종합적 사고력을 이루는 하위 영역 간의 유기적 관련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문항 제시 방식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⁸⁾

II.2. TOCT: 중앙일보사 주관 비판적 사고력 평가

고등 교육의 핵심 역량을 객관화하려는 또 다른 움직임의 하나로 고차적 또는 비판적 사고를 평가하는 사설기관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중앙일보는 2009년부터 TOCT (Test of Critical Thinking)라는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⁹⁾하여 초·중·고등 교육은 물론이고 기업의 입사 시험과도 연계하고 있다.

K-CESA와 마찬가지로 TOCT 역시 고등교육의 학습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국내외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이 고등교육 학습역량의 핵심이라고 보고,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국내의 평가 도구들은 비판적 사고의 하위 능력들만 측정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해 수용할 수

7) 위의 책, 195-201쪽 참고.

8) <http://www.kcesa.re.kr>에서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9) 이하 <http://www.toct.org> 참고.

있는 종합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고, 비판적 사고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검사도구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발 배경에 입각해 TOCT는 그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1)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선진국형 검사도구, 2) PSAT나 LEET와 같은 국내 주요 시험들의 핵심을 관통, 3) 해외 주요 대학 및 대학원 입학의 열쇠, 4) 탁월한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리더십의 새로운 지표, 5) 인재의 능력을 객관적인 척도로 측정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TOCT는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평가하는가? TOCT는 비판적 사고력을 인지 유형별로 (1) 포괄적 이해 능력, (2) 창조적 구성 능력, (3) 합리적 평가 능력, (4) 전략적 사고 능력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1) 포괄적 이해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일상어의 정확한 의미 파악하기, 진술의 논리적 의미 파악하기, 논증의 의미 파악하기 등으로, 제시되는 정보의 논리적 의미와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논지를 파악하는 능력, 파악된 논지를 전제-결론의 논리적 관계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분석대상을 논증적으로 이해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평가자의 논리적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창조적 구성 영역에서는 다양한 속성이나 관계들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 구성하기, 추론 과정에 숨겨진 전제를 간과해 내는 숨은 전제 찾기, 법칙이나 가설을 창조적으로 제안하는 가설 찾기 등을 통하여 전제들로부터 정당화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등을 측정한다. (1)이 논리적 분석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는 논리적 분석력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그것을 활용해 추론해내는 논리-추론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다거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숨은 전제를 파악하고 구성한다는 것은 전제-결론의 논리적 관계 분석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 합리적 평가 영역에서는 거짓되거나 모순된 정보나 진술을 골라내는 신뢰도 평가하기, 주어진 근거나 추가된 근거의 충분성 또는 적절성을 검토하는 논증 평가하기, 대립하는 견해들 중 어느 쪽이 합당한지를 결정하는 반론 평가하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 역시 (1)과 (2)에서 평가하고 있는 논리분석 및 추론능력 평가와 본질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다. 즉, 합리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논리 또는 논증적 사고에 기반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역 (3)에서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1)과 (2)에서의 문제해결을 전제하고 있다. K-CESA 종합적 사고력 평가의 하위영역인 평가적 능력 항목이 분석적 능력과 추론적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4) 전략적 사고 영역에서는 목적에 맞는 수단을 택하거나 조건에 맞는 대안을 찾는 전략

적으로 사고하기, 결정상황이나 게임 상황을 재구성하고 평가하기, 역설과 딜레마 등의 난국 타개하기 등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것 역시 논리분석 및 추론능력에 기반 고차적 사고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이 영역에서는 다양한 상황과 주어진 맥락에서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응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TOCT 하위 영역 및 평가 요소¹⁰⁾

하위 영역	평가 요소
포괄적 이해 (15 문항)	일상어의 정확한 의미 파악하기, 진술의 논리적 의미 파악하기, 논증의 의미 파악하기
창조적 구성 (15 문항)	다양한 속성이나 관계들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 구성하기, 추론 과정에 숨겨진 전제를 간파해 내는 숨은 전제 찾기, 법칙이나 가설을 창조적으로 제안하는 가설 찾기
합리적 평가 (15 문항)	거짓되거나 모순된 정보나 진술을 골라내는 신뢰도 평가하기, 주어진 근거나 추가된 근거의 충분성 또는 적절성을 검토하는 논증 평가하기, 대립하는 견해들 중 어느 쪽이 합당한지를 결정하는 반론 평가하기
전략적 사고 (15 문항)	목적에 맞는 수단을 택하거나 조건에 맞는 대안을 찾는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결정상황이나 게임상황을 재구성하고 평가하기, 역설과 딜레마 등의 난국 타개하기

TOCT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방법은 오지 선다형 객관식 절대평가 유형이다. 영역별로 배당된 총 60문항을 110분 동안 평가하는데, 하위 평가 영역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하위 평가 영역 점수를 합산한 후 다시 9단계의 레벨로 종합 평가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객관화한다.

TOCT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방식은 비판적 사고력의 객관화와 평가의 용이성에 기여하겠지만, K-CESA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비판적 또는 창조적 사고력의 내재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평가가 선다형 또는 논술형 중 어느 한 유형으로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 영역 중 보다 기초가 되는

10) www.toct.org 참고.

논리분석 및 추론 능력은 선다형으로 평가하고, 논리분석 및 추론 능력에 기초해 이를 응용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영역들은 논술형으로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면 선다형과 논술형 문항의 장점만 살려 비판적 사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대안적 평가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나오는 말: 대학 교양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

Ⅱ장에서 비판적 사고의 평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비판적 사고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재의 역량이 무엇인지 역으로 추론해 보았다. K-CESA와 TOCT 평가를 사례로 분석한 바, 비판적 사고는 논리-추론 능력에 기반을 두고 이를 응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전략적/창조적/대안적 능력을 포괄하는 고차적 사고 역량을 다루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 또한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은 단순히 평가를 잘 치러 내는 인재 양성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험 점수가 좋은 인재 양성이 대학 교육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논자는 비판적 사고를 고차적 사고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고의 방법론으로 정의했다. 즉 비판적 사고는 그것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비판적 사고는 논리-추론 능력과 이것을 응용한 전략적/창조적/대안적 능력을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구적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교양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할 수 있다. 1) 교양 교과로서의 비판적 사고는 고차적 사고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 비판적 사고는 1)을 통해 재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전공 학습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구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3) 비판적 사고는 1)과 2)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지금까지 비판적 사고 관련 교육들이 논리/논술 위주의 교육, 각종 시험대비 목적의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대학 교양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되짚어 보아야 할 것 같다. 비판적 사고의 내용들을 잘 학습하여 각종 시험들을 잘 치러내는 것도 물론 교육의 일부이겠지만, 학습한 내용들

삶에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미국의 비판적 사고 재단(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이 제시하는 비판적 사고 교육의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¹¹⁾ 리처드 폴(Richard Paul)에 따르면 기존의 비판적 사고 관련 평가들이 추론, 귀납, 연역, 해석, 분석, 종합, 신빙성, 생략된 전제 찾기, 논증 분석하기, 애매한 말 사용 피하기, 무관성, 순환성, 허수아비 논증, 성급한 일반화, 과도한 회의주의 등을 단순히 테스트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보고, 적절한 비판적 사고 교육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²⁾ 특히 이러한 능력들은 학생들이 전공하고 있는 학과목에 접목될 수 있어야 하고, 전공 학과의 내용들을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가 역할을 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 교육은 II장에서 살펴본 고차적 사고의 구체적 내용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이를 활용해 자기 전공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비판적 사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전공이 다양하므로 비판적 사고 교육의 내용들도 그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비판적 사고 평가 문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전공과 관련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 부과하는 과제나 수업활동 역시 비판적 사고의 전공 관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한 대학이 배출해야 할 인재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그래서 시험성적만 좋은 인재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자신의 전문분야와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인재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 교육은 다양한 전공과의 관련성을 추구하여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고차적 사고의 실현을 추구하는 교양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11) www.criticalthinking.org 참고.

12) R. Paul, L. Elder, "White Paper, Consequential Validity: Using assessment to drive instruction" 참고. www.criticalthinking.org.

참 고 문 헌

- 진미석 외, 『2009년도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체제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2010.
- 홍경남, 서민규, 「대학 비판적 사고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4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0.
- Barbara Ischinger,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Director for Education,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대학교육 학업성취도 평가 간담회」 발표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
- R. Paul, L. Elder, “White Paper, Consequential Validity: Using assessment to drive instruction”, www.criticalthinking.org.
- <http://www.kcesa.re.kr>
- <http://www.toct.org>
- www.criticalthinking.org

※ 이 논문은 2010년 11월 20일 투고 완료되어
2010년 11월 25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0년 12월 11일까지 심사하고
2010년 12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

Resume

What to teach and How to evaluate in Critical Thinking Courses

Seo, Min-Gyu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for the role of the critical thinking in the college level general education program. The critical thinking can be defined as the methodology of the reflective thinking based upon the logical process of thinking and the soundness of judgement. Analysing the recent evaluation tools related with the critical thinking, I reason that what the critical thinking must teach and evaluate: the strategic/creative/alternative thinking competence for problem-solving based upon the logic-reasoning process of thinking. Th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at the college level needs to promote this ability, but it must not be confined within this; when it stimulates the students to practice what they learned from critical thinking, it plays the successful role of a tool-curriculum as the methodology of the reflective thinking. In this, I suggest that th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in the colleges needs to develop its contents reflecting the students' majors, and the class activities, homeworks, and the evaluations in the critical thinking must optimize its relevance with the students' majors and their interest.

Key Words : Critical thinking, Higher order thinking, Creative thinking,
Logic/reasoning, K-CESA, TOCT